

식량자급률 55% 목표... '인구 절벽 심각' 청년농 3만명 육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정 2023년 10대 농정이슈

2027년까지 밀·콩 등 자급률 재설정... 직불제·정착지원금 확대·개편
고령 경영주 56% 농업노동력 공급확대 시급...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등

오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 올리고 같은 기간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는 농정 과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꼽은 '2023년 10대 농정이슈'에 들었다.

연구원은 최근 2023년 10대 농정이슈라는 제목의 'KREI 농정포커스'를 발간했다.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현안'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농산물 유통다지탈화 진전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취약계층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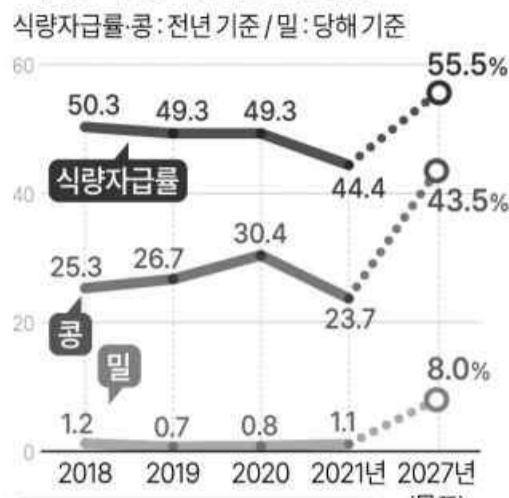
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등이 꼽혔다.

현 정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삶의질향상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합했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향 전망되고 미국 고물가(인플레이션)에 따라 고강도 통화 긴축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를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가뭄 영향으로 곡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기준 쌀 자급률이 84.6%에 머물고, 콩 자급률은 23.7%, 밀 자급률은 1.1%에 그친 가운데 곡물 수입 불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내 식량자급률 현황



연말뉴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에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기름 등 원자재 가격과 금리·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하지만 농촌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쌀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45만에 달하는 시장격리를 진행했지만 쌀값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결정했다.

이는 평년(2017~2021년) 대비 5.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국제 가격 영향이 큰 밀과 콩 자급률은 같은 기간 각각 8%와 43.5%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곡물 수입 안정과 관련한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른 작물 재배 전환 정책이 주로 쌀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적인 지원에 그쳐 정책효과가 반감됐다"며 "신설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실질적인 정착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원 대상 확대와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을 연계해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와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도 시급한 현안이다.

농업경영주 중 65세 이상인 고령 농업경영주 비율은 2000년 32.7%에서 2010년 46.4%, 2020년 56.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은 2000년 6.6%에서 2010년 2.8%, 2020년 1.2%로 급감해왔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신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나 농업이민제 등 '중장기 인력 계획'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지난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올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참여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전략 마련도 당면 현안이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세계 인구의 32%, 세계 GDP의 41%를 차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도-태평양지역 경제·통상협력 체제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축산농협 '축산인 신년교례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희상·오른쪽 4번째)은 최근 광산구 신촌동 본점에서 '2023년도 축산인 신년교례회'를 열고 올해 조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코로나19 탓에 3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주축협 임·직원과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축협 제공>

해수담수화 지원 활성화... '수출·가뭄극복' 두 토끼 잡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 광양제철소 방문... 해외시장 진출 방안 논의

정부가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바꿔 사용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수담수화 시설을 도입한 광양제철소를 찾아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 장관은 이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수어담을 방문해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바꾸는 해수담

수화 시설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과 시설 수출을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양제철소 해수담수화는 지난 2014년 국내 처음으로 추진됐다. 광양제철소는 하루 약 2만7000t의 해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광양제철소 하루 용수사용량 24만1000t의 10%를 넘어서는 양이며, 광양시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5만

6000t)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 장관은 "국내에서 발전된 해수담수화 기술이 가뭄 극복에 적극 활용되면서 중동 등 물이 부족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제철소에 이어 한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관리하는 수어담 현장(광양시 진상면)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광주 지역, 전남 13개 시·군과 '자율적수 수요조정제도' 협약을 맺는 등 용수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차례상은 신선하고 안전한 광주 농산물로"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앞줄 가운데)와 광주지역 농·축협 직원들이 지난 5일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장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협의회 개최

17~18일 설 명절 직거래 장터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광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가격에 판매하는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오는 17~18일 진행한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5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광주지역 15개 농·축협과 '2023년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농·축협 판매사업 담당자들은 이날 장터 품

목 선정과 운영 계획,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도 설 직거래장터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는 17일 먼저 시작한다.

이튿날에는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장터가 열린다.

광주경찰청 직원들은 설 선물을 예약 주문하며 지역 농업인 돕기에 나선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통해 유통비용을 낮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원주택 (1채) → 7,000만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흥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td> <td>▶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td> <td>▶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서구 화정동 (주택)</td> <td>▶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박호동 (주택)</td> <td>▶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td> <td>▶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r> <td>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td> <td>▶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010-6670-9800		010-2614-9801																